76年韓國經濟와 展望

李漢泳 〈韓國經濟研究所〉

새해들어 국내 企業들은 대체로 지난 2년간의 극심한 不況을 벗어나 生産 및 販賣활동이 활기를 띨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大韓商議가 조사한 올상반기 企業景氣 전망이나 全經聯이 조사한 業種別景氣 전망을 보면 모두 희망적으로 나타나 있다.

다만 業種別로 기복은 있으나 대부분 景氣가 회복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리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세계각국의 景氣전망이 아직까지 불투명하여 완전한 景氣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인데 이번조사에 나타난 「景氣회복전망」이란 어디까지나 지난 2년간 지속된 극도의 침체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다.

바닥권을 벗어난 景氣가 어느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지엔 매우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業種이 生産販賣활동의 好轉을 예상하면서도 企業經營환경은 여전히 갖가지 어려움에 휩싸일것으로 내다보고있다. 景氣조사를 실시한 商議나 全經聯측도 최소한 上半期중에는 완전한 景氣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조심스런 태도는 국내景氣를 海外景氣동향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데서 나오고 있으며 새해들어 世界景氣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리라는 것은 공통된 견해지만 갖가지 不安요인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ECD제국의 경우만해도 올해들어 4%의 실질성장을 기대하고 貿易도 輸入 6%, 輸出 4.5%의 실질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인플레의 위협이 남아 있어 各國이 적극적인 景氣회복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失業率이 올해도 계속 늘어가고 國際收支도 惡化될 전망이어서 先進각국의 본격적인 景氣회복이 올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며 따라서 국내 景氣도 하반기 이후에야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調査에 나타난 業種別景氣 전망을 보면 製造業 부문에서 輸出전망에 비교적 밝은 業種들이 生産 및 販賣활동의 好轉을 예상하고 있다. 製菓, 纖維, 衣服, 가죽 製造業, 신발類, 成樹脂제품, 타이어및 튜브, 電子, 金屬제품, 機械장비제조업, 製藥, 등이 상반기중 전반적으로 企業활동이 활기를 띨것으로 내다 보으며 製粉, 製糖, 시멘트, 合板, 製材, 第1次金屬 제조업 등은 여전히 침체상을 지속 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중 景氣好轉을 예상하는 業種이나 침체상을 지속할것으로 내다보는 業種이나 모두 우려하고 있는 것은 原料價나 人件費 등의 앙등에 따른 原價高압력과 資金難의 심화를 들고 있다.

세계적인 景氣상승 무드 속에 國際原資材값의 앙등이 예상되는 반면 輸出價등 販賣價의 상승이 뒤따르지 못할것이란 전제아래 企業經營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부 業種은 原資材의 적기확보여하에 따라 景氣회복 진폭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시멘트, 電子등은 輸出價의 하락이 예상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부분의 業種이 공통으로 지적한 經營애로 요인은 資金難심화로 나타났으며 製粉, 酒類, 石油, 石炭, 電子등은 製品價格의 非現 實化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장 심한 침체상을 보인 業種의 하나인 시멘트, 철강은 올해들어 輸出이 다소 증가될 것이란 희망속에서도 輸出價의 하락으로 인한 輸出적자를 정부가 어떻게 보상해 주느냐에 따라 景氣양상이 달라질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뚜렷한 好轉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商議가 조사한 BSI(企業景氣實査指數)를 보면 1월중엔 계절적 요인으로 基準價이하인 마이너스 2.1을 나타내다가 2월의 0.8을 고비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 3월에 21.7, 4월 27.3 5월 26.1, 6월 19.4 등으로 期中 상승세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나타났다. 1,2월에 BSI가 낮은 수준에 머물다가 3,4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은 季節的요인에 따른 것으로 예년에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75년의 전반적인 실적에 비하면 그 상승폭이 크다는 점에서 완만하나마 景氣好轉의 조짐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全經聯이 조사한 生産동향에서도 製粉과 製糖을 제외한 모든 業種이 지난해 생산 실적을 앞지르는 生産증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 증대폭이 제과·電子·제약등을 제외하곤 모두 10~20%선을 예상하여 지난해보다 상대적인 회복세를 기대하면서도 회복의 폭이 크지 못하고 극히 완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景氣회복의 폭이 크지 못할지라도 대부분의 業種이 지난해 보다는 호전될 것이란 반응을 보인 것은 새해들어 世界景氣가 완만하나마 회복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반적인 世界景氣 전망과 부합되는 것으로 일단 희망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業界가 공통으로 지적한 資金難완화를 비롯 原資材의 적기확보 輸出결손 보전 價格現實化등 經營애로 요인을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주느냐가 문제로 남아 있다.

·새해들어 정부는 어느 때 보다도 安定에 우선을 두어 긴축 정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輸出여건의 好轉과함께 국내적으로 企業 자금을 어떻게 원활히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 올해 業界景氣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